

피터 싱어

마르크스

첫단추

제 2 판

차례

머리말

감사의 글

삽화 목록

약어표

1 마르크스의 삶과 유산

2 청년헤겔학과

3 신에서 화폐로

4 프롤레타리아에게로

5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6 역사유물론의 정립

7 역사의 목표

8 경제학

9 공산주의와 혁명

10 마르크스는 옳았는가?

11 마르크스는 여전히 유효한가?

인용 출처

참고 문헌

머리말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 주년은 그가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재평가할 기회다. 20 세기를 풍미한 19 세기 사상가 마르크스의 사상은 이제 폐기되었을까? 아니면 마르크스는 다윈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한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켰을까? 어쩌면 그의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길은 두 극단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의 목표 한 가지는 이 물음들에 답하는 것이다. 나의 또 다른 목표는 마르크스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그의 중심 사상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대한 책은 수없이 많으므로 또 다른 책을—아무리 얇은 책이라도—보태고 싶다면 그 전에 두 번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마르크스의 방대한 저작에 깔려 있는 일관된 관점을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판이 성공을 거둔 것을 보면 이런 책의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학술 연구에서 새로운 사실과 통찰이 제시되었기에 이번 제 2 판은 최근의 연구 성과를 포함하는 한편 오늘날 마르크스 사상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대목을 첨가했다.

피터 싱어

프린스턴 대학교와 멜버른 대학교

감사의 글

마르크스의 생애에 대한 전기적 사실들은 데이비드 매클렐런 David McLellan 의 『칼 마르크스 전기: 그의 생애와 사상 Karl Marx: His Life and Thought: A Biography』 제 4 판(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과 개러스 스테드먼 존스 Gareth Stedman Jones 의 『카를 마르크스: 위대함과 환상 Karl Marx: Greatness and Illus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한국어판은 『카를 마르크스: 위대함과 환상 사이』, 아르테, 2018)을 참고했다. 이 책 초판에서는 G. A. 코언, 로버트 하일브로너, 레나타 싱어, 매릴린 웰츠가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다. 제 2 판에서는 찰스 브레슬러, 이아손 개브리엘, 특히 카스턴 스트롤의 조언이 큰 보탬이 되었다. 조너선 캐틀린은 초판 인용문의 출처와 번역을 개정하는 작업을 도왔으며 여러 귀중한 조언으로 원고의 수준을 높였다. 루쭈쑹과 류야치는 오늘날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게 해주었다. 저스틴 메이먼은 전구를 갈아 끼우는 데 마르크스주의자 몇 명이 필요한지 알려주었다.

초판은 키스 토머스와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헨리 하디의 청을 받아 썼다. 제 2 판을 쓰라고 제안한 사람은 ‘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의 편집자 앤드리아 키건이다. 21 세기에 마르크스에 대해 다시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준 그녀에게 감사한다. 이 책의 제작을 감독한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의 제니 누지와 SPi 글로벌의 엘라키아 바란티에게도 감사한다.

삽화 목록

1 1836 년, 18 세의 카를 마르크스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Amsterdam).

2 예니 마르크스(원래 이름은 예니 폰 베스트팔렌)

SPUTNIK/Alamy Stock Photo.

3 마르크스가 생애의 마지막 15 년을 보낸 런던 해버스톡힐 메이틀랜드 파크로드 41 번지 외관

사진: Rosemary Matthews/BIPs/Getty Images.

4 G. W. F. 헤겔(1770~1831)

Wikimedia Commons/Public Domain.

5 포이어바흐에 대해 쓴 마르크스의 열한 번째 논문 원고

INTERFOTO / Alamy Stock Photo.

6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

© Roger-Viollet / TopFoto.

7 1842 년에 개장한 옛 영국 도서관의 원형 열람실(이곳에서 마르크스가 『자본론』 을 집필했다)

사진: Popperfoto/Getty Images.

8 영국의 한 공장

Neveshkin Nikolay/Shutterstock.com.

9 마르크스가 『프랑스 내전』 에서 묘사한 파리 코뮌

© De Agostini/Biblioteca Ambrosiana/age fotostock.

10 카를 마르크스

© Everett Historical/Shutterstock.com.

11 중국 충칭에 있는 마르크스 동상

Bill Perry/Shutterstock.com.

12 런던 하이게이트 묘지에 있는 마르크스의 무덤

Christian Mueller/Shutterstock.com.

약어표

본문에서 마르크스의 저작을 언급할 때는 통상 제목 약어와 쪽수로 표시한다. 따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쪽수는 데이비드 매클릴린 엮음, 『카를 마르크스 선집』 제 2 판(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을 따른다.

B ‘On Bakunin’s *Statism and Anarchy*’. 한국어판은 『맑스·엔겔스의 농업론』 (아침, 1990)에 실린 「바쿠닌의 『국가제와 무정부』 개요」.

CI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제 1 권, 벤 포크스 Ben Fowkes 번역(London: Penguin, 1990). 한국어판은 『자본론 I[상, 하]』 (비봉출판사, 2015).

CIII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데이비드 펠바흐 David Fernbach 번역(London: Penguin, 1993). 한국어판은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III[상, 하]』 (비봉출판사, 2015).

CM *Communist Manifesto*. 한국어판은 『공산당 선언』 (b, 2018).

D 박사 논문.

EB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한국어판은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2016)에 실린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 일」.

EPM *Economic and Philosophical Manuscripts of 1844*. 한국어판은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2016)에 실린 「1844 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G *Grundriss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마틴 니콜라우스 Martin Nicolaus 번역(London: Penguin, 1993). 한국어판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그린비, 2007).

GI *The German Ideology*. 한국어판은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2016)에 실린 「독일 이데올로기」.

GP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한국어판은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4』 (박종철출판사, 2016)에 실린 「고타 강령 초안 비판」.

HF *The Holy Family*. 한국어판은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2016)에 실린 「신성 가족 혹은 비판적 비판에 대한 비판」.

- I ‘Towards a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 Introduction’. 한국어판은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2016)에 실린 「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설」.
- J ‘On the Jewish Question’. 한국어판은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책세상, 2015).
- M ‘On James Mill’(평주).
- MC David McLellan, *Karl Marx: His Life and Thought: A Biography*, 4th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에 인용된 편지와 여러 저작.
- P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한국어판은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2016)에 실린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문」.
- PP *The Poverty of Philosophy*. 한국어판은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2016)에 실린 「철학의 빈곤」.
- R 1843 년 루게와 주고받은 편지.
- T ‘Theses on Feuerbach’. 한국어판은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2016)에 실린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들」.
- VPP ‘Value, Price and Profit’ (*Wage-Labour and Capital & Value, Price and Profit*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5)에 수록). 한국어판은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3』 (박종철출판사, 2016)에 실린 「임금, 가격, 이윤」.
- WLC *Wage-Labour and Capital*. 한국어판은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2016)에 실린 「임금 노동과 자본」.

1 장

마르크스의 삶과 유산

마르크스가 끼친 영향

마르크스가 끼친 영향은 예수나 무함마드 같은 성인에 비길 만하다. 20 세기 후반의 대부분 기간 동안,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정권에 속한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열 명 중 네 명에 이르렀다. 이 나라들에서 마르크스는 세속의 신을 방불케 한다. 어디에나 그의 모습이 경건하게 전시되어 있으며 그의 말은 진리와 권위의 최종 근거로 통한다. 정치 지도자와 적수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들어맞도록 마르크스의 말을 해석했으며 패배한 자는 이단과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마르크스의 유산은 수억 명의 삶을 (좋게든 나쁘게든) 바꿨다.

그의 영향은 공산주의 사회에 국한되지 않았다. 보수주의적 사회주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권 반대 운동에 맞서고자 사회복지 체계를 확립했다. 마르크스주의의 또 다른 적수들은 더 가혹하게 맞섰다.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데는 보수파가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의 위협과 맞서 싸울 가장 유망한 세력으로 여긴 탓도 있다. 심지어 미국처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권력을 쥔 현실적 전망이 전무한 나라에서도 마르크스주의적 국의 존재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군비 지출을 확대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리고 베트남 문제에 개입하여 재난을 가져온) 호전적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를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었다. 이제 마르크스의 사상은 우리가 사회에 대해, 또한 계급과 경제적 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바탕이다. 그의 사상은 역사 연구와 사회학을 변화시켰으며 철학, 문학, 예술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는 모두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렇게 폭넓은 영향을 끼친 사상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이 책의 주제다. 하지만 우선 마르크스주의를 낳은 인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출생, 학업, 결혼

카를 마르크스는 1818 년 독일 라인란트의 트리어에서 태어났다. 부모 하인리히와 헨리에타는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다. 하인리히는 라인란트가 프랑스 영토이던 1814 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1815 년에 나폴레옹이 패배하여 라인란트가 프로이센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유대인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하인리히 가족은 명목상 루터파가 되었다. 그의 가족은 부자는 아니어도 풍족했다. 종교와 정치에 대한 견해는 진보적이었으나 급진적이지는 않았다.

마르크스의 지적 여정은 법학을 공부하려고 본 대학교에 입학한 17 세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시작은 좋지 않았다. 그는 1 년도 못 되어 주취 난동으로 투옥되었으며 결투를 벌이다 경미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어릴 적 좋아하던 예니 폰 베스트팔렌에게는 연애서를 썼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아들의 '광란'에 신물이 나서 더 학구적인 베를린 대학교로 그를 전학시켰다(그림 1 참고).



1. 1836 년, 18 세의 카를 마르크스.

베를린에 간 마르크스는 법학에서 철학으로 돌아섰다. 그의 아버지는 실망하여 편지에서 이렇게 나무랐다. “전에는 맥주 마시느라 머리가 썩더니 이제는 잠옷 바람에 빗질도 하지 않고 공부하느라 머리가 썩었구나”(MC 27). 마르크스는 꾸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죽자 장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소득 없이는 가족이 마르크스를 무한정 뒷바라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대학 강사 자리를 얻으려고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논문 자체는 데모크리토스 자연철학과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몇 가지 차이점이라는 오래되고 학술적인 주제를 다뤘으나 마르크스는 이 고대의 논쟁이 헤겔 철학의 해석에 대한 논쟁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헤겔 철학은 독일 사상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만나는 교차로였다.

논문은 1841 년에 통과되었으나 대학 강사 자리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언론에 흥미를 느꼈으며, 새로 창간된 진보 언론 《라인 신문 Rheinische Zeitung》에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문제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그의 글은 호평을 받았으며 신문사 내에서 인맥이 어찌나 두터웠던지 1842 년에 편집인이 사임하자 스물두 살에 불과한 마르크스가 만장일치로 후임이 되었다.

편집인 시절은 짧았으나, 그의 타은 결코 아니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프로이센 정부의 검열관도 《라인 신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는 모젤 강 유역 포도 재배 농민들의 빈곤에 대한 기사를 잇따라 썼는데, 이게 당국의 심기를 거슬렀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정부는 《라인 신문》을 탄압하기로 작정했다.

마르크스는 상심하지 않았으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국이 “내게 자유를 돌려주었”다고 썼다(MC 50). 신문 편집의 부담에서 벗어난 마르크스는 헤겔의 정치철학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더 시급한 관심사도 있었으니, 그것은 약혼 7 년째인 예니와 결혼하는 것이었다(그림 2 참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찾아 프로이센을 떠나고 싶었다. 문제는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다시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촉망받는 젊은 저술가로서 명성이 높았기에 새로 창간된 잡지 《독불 연보 Deutsch-Französische Jahrbücher》의 공동 편집인으로 초빙되었다. 그 덕에 결혼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으며 어디로 갈지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독불 연보》는 독일과 프랑스의 저자와 독자를 겨냥한 잡지였다.



2. 예니 마르크스(원래 이름은 예니 폰 베스트팔렌).

혁명적 사상

카를 마르크스와 예니 마르크스는 1843 년 가을에 파리에 도착했으며 이내 급진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다. 파리는 진보적 사상의 중심지였다. 마르크스는 《연보》에 실기 위해 글을 두 편 썼다. 하지만 이 잡지는 《라인 신문》보다 더 단명했다. 창간호는 프랑스의 구독자를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여 파리에서 거의 이목을 끌지 못했으며 프로이센에 보내진 것들은 당국에 압수되었다. 후원자들도 손을 뗐다. 한편 압수한 창간호에서 공산주의 사상과 혁명적 사상을 발견한 프로이센 정부는 편집

인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마르크스는 프로이센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정치 망명자 신세가 되었다. 다행히도 《라인 신문》의 전前 주주들에게서 상당한 금액을 받았기에 일자리를 구할 필요는 없었다.

마르크스는 1844 년 내내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다듬었다. 그의 사상은 매우 넓은 의미에서의 철학으로,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세계에서 작동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관념을 아울렀다. 이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를 자처할 준비가 되었다. 당시 파리에서는 온갖 종류의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찾아볼 수 있었으므로 유별난 일은 아니었다.

같은 해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우정이 시작되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51 쪽 그림 6 참고)의 아버지는 맨체스터에 방직 공장을 소유한 독일인 기업가였지만,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같은 독일인 지식인 집단과 교류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되었다.[편집자에게: 쪽수를 한국어판에 맞게 고쳐주세요.] 엥겔스가 《독불 연보》에 기고한 글은 경제학에 대한 마르크스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 엥겔스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함께 소책자를 쓰기 시작했다(엥겔스는 그 정도 분량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다). 엥겔스는 열다섯 쪽가량을 집필하고는 원고를 마르크스에게 맡긴 채 파리를 떠났다. 그 ‘소책자’는 1845 년에 『신성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마르크스의 첫 책으로, 분량은 300 쪽에 이르렀다.

한편 프로이센 정부는 파리에 사는 독일인 공산주의자들에게 조치를 취하라며 프랑스를 압박했다. 추방령이 내려졌으며 마르크스 부부는 큰딸 예니와 함께 브뤼셀로 이주했다.

브뤼셀 체류 허가를 얻으려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지만, 마르크스는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공산주의자연락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약속을 어겼다. 그런데도 3 년간 브뤼셀에 체류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는 경제학과 정치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책을 출간하기로 출판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책은 1845 년 여름까지 완성해야 했다. 이것은 훗날 『자본론』이 될 책에 대해 마르크스가 어긴 여러 마감일 중 첫 번째였다. 출판업자는 원고를 받기 전에 인세를 지불했는데, 틀림없이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이다. (계약은 결국 취소되었지만, 불운한 출판업자는 1871 년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때부터 엥겔스가 마르크스를 금전적으로 돕기 시작했는데, 마르크스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주 만났다. 엥겔스가 브뤼셀에 왔는데, 그 뒤에 둘은 잉글랜드로 건너가 새로운 산업 시대의 심장부인 맨체스터에서 6 주간 경제학을 공부했다. (예니는 둘째 딸 라우라를 임신하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귀국하는 길에 경제학 서적 집필을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실증적 이론을 내놓기 전에 당시 독일의 철학·사회주의 진영에서 유행하던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 결과물이 『독

일 이데올로기』다. 길고 군데군데 장황한 이 책은 적어도 일곱 군데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으며 급기야 “쥐들이 값아 먹는 비판에” 처하는 신세가 되었다(P 426.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돌베개, 1994) 14 쪽).

『독일 이데올로기』를 쓰는 것 이외에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광범위한 투쟁의 동맹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프랑스의 주도적 사회주의자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을 공격하는 반박문을 썼다. 마르크스는 말로는 “권위에 대한 미신적 태도”를 반대한다면서도 자기 사상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어찌나 크던지 다른 의견을 참아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자연락위원회와 그 후신인 공산주의자동맹은 종종 분란을 겪었다.

마르크스는 새로 결성된 공산주의자동맹의 회의에 참석하려고 1847년 12월에 런던에 갔는데, 여기서 자신의 사상을 공산주의 활동의 토대로 삼을 기회를 얻었다. 그는 기나긴 논쟁을 벌이며 공산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옹호했으며 마침내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자동맹의 강령을 쉬운 말로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렇게 탄생한 『공산당 선언』은 1848년 2월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마르크스 이론의 열개를 보여주는 대표작이 될 터였다.

하지만 『공산당 선언』은 곧바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공산당 선언』이 출간되기 전에 1848년 프랑스 혁명으로 유럽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은 유럽 전역에서 혁명 운동의 방아쇠를 당겼다. 초조해진 벨기에 정부는 마르크스에게 24시간 안에 출국할 것을 요구했는데, 때마침 프랑스의 새 정부에서 마르크스의 추방령을 해제했다. 마르크스 가족은 처음에 파리로 갔다가 베를린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라인란트로 돌아왔다. 마르크스는 쾰른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급진파 언론 《신 라인 신문 Neue Rheinische Zeitung》을 창간했다. 신문은 혁명에 동참한 광범위한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했다. 한때 번창하기도 했으나, 혁명이 흐지부지되면서 프로이센은 다시 군주제로 돌아섰고 마르크스는 다시 짐을 싸야 했다. 그는 파리 체류를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추방당했으며, 더 철저한 혁명이 일어나 대륙으로 돌아갈 수 있을 날을 고대하며 1849년 8월 24일 잉글랜드로 향했다.

런던에 정착하다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여생을 보냈다. 가족은 처음에는 매우 가난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소호에 있는 방 두 칸이었다. 예니는 넷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셋째인 아들 에드가는 브뤼셀에서 태어났다). 그

런데도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동맹에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벌였다. 그는 프랑스 혁명과 그 여파에 대해 글을 썼으며, 공산주의자동맹 쾰른위원회의 회원들이 “반역 모의”로 프로이센 당국에 고발당하자 이들을 지지하는 운동을 조직했다. 경찰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마르크스가 분명히 입증했는데도 회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자 마르크스는 동맹의 존속이 “더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동맹은 해산되었다. 마르크스는 한동안 모든 정치 조직과 연을 끊은 채 고립된 삶을 살았다. 그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독일의 좌익 망명객들과 이론 논쟁을 벌였다. 편지에서 그는 먹을 것이 빵과 감자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모자란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철도 직원 채용에 응시하기도 했는데, 악필 때문에 탈락했다. 마르크스는 전당포를 뺏길나게 드나들었다. 하지만 엥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마르크스에게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마르크스가 가난했던 것은 수입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예니는 여전히 헬레네 데무트를 하녀로 두고 있었다. 데무트는 마르크스가 죽는 날까지 함께 살았다. (1851년에 마르크스와 사이에서 사생아 프레더릭이 태어났는데, 추문을 피하기 위해 양부모가 키웠다.) 이 시기에 마르크스 가족은 개인적 비극을 겪었다. 넷째 아이는 젖먹이 시절에 죽었으며 그 뒤에 태어난 아기도 1년 안에 숨졌다. 최악의 타격은 아들 에드가가 여덟 살에 죽은 것이었다. 사인은 결핵으로 추정된다.

1852년부터 마르크스는 일정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 쾰른에서 만난 《뉴욕 트리뷴 New York Tribune》편집인에게 원고 청탁을 받은 것이다. 마르크스는 수락했으며 그 뒤로 10년에 걸쳐 마르크스가 쓴 글이 매주 한 번꼴로 《트리뷴》에 실렸다(일부는 엥겔스가 남몰래 쓰기도 했지만). 1856년에는 예니가 두 건의 유산을 상속받아 형편이 더 좋아졌다. 이제 마르크스 가족은 소호의 비좁은 방에서 햄스테드 히스 근처의 방 여덟 칸짜리 집으로 이사했다.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햄스테드 히스에 나들이를 갔다(그림 3 참고). 그해에 마르크스의 셋째 딸 엘리너(아명은 ‘투시’)가 태어났다. 예니는 한 번 더 임신했지만 사산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후로 마르크스의 자녀는 예니, 라우나, 엘리너 셋뿐이었다. 마르크스는 아이들에게 온화하고 다정한 아버지였다.



3. 마르크스가 생애의 마지막 15 년을 보낸 런던 해버스톡힐 메이틀랜드 파크로드 41 번지 외관.

제 1 인터내셔널과 『자본론』 출간

이 시기 내내 마르크스는 머지않아 혁명이 일어나리라 예상했다. 그의 집필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 1857~1858 년이었는데, 이는 경제 불황을 목격하고서 자본주의의 최종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착각했

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사상이 현실에 뒤쳐질까봐 (엔겔스에게 보낸 편지에 썼듯) “홍수가 나기 전에” 책의 윤곽을 뚜렷이 정하려고 “불철주야 맹렬히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800 쪽이 넘는 『자본론』 초고를 6 개월 만에 썼다. 초고는 『자본론』의 최종 형태보다 훨씬 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야심찬 기획이었다. 1859 년에 마르크스는 경제학에 대한 저술의 일부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책에는 (자신의 지적 발전을 요약한 유명한 서문을 제외하면) 마르크스의 독창적 사상이 별로 담겨 있지 않았으며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더 독창적인 나머지 부분의 출간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으레 그랬듯) 좌익 정치인이자 편집자 카를 포르트와 싸움을 벌였다. 마르크스는 포르트가 프랑스 정부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포르트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마르크스가 위조범이자 협박범이라고 말했다. 마르크스는 포르트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200 쪽짜리 책으로 응수했다. 몇 해 뒤에 마르크스가 옳았음이 밝혀졌으나, 18 개월간 소송을 벌이면서 거액을 탕진하는 바람에 그동안은 중요한 글을 하나도 쓰지 못했다.

마르크스의 경제학 서적 집필이 지지부진한 데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다. 1864 년 런던의 한 대중 집회에서 국제노동자협회(훗날 제 1 인터내셔널로 알려졌다)가 결성된 것이다. 마르크스는 참석 요청을 수락했으며 총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마르크스는 뛰어난 지성과 인간적 매력으로 금세 협회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창립 선언문과 정관을 작성했다. 물론 제 1 인터내셔널 잉글랜드 분과의 기반을 이루는 조합주의자들과는 상당히 달랐으나 드물게도 외교력을 발휘하여 차이를 해소하고 협회의 노동자 계급 회원들을 자신의 장기적 전망 쪽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이었다.

1867 년에 마르크스는 마침내 『자본론』 제 1 권을 완성했다. 이번에도 첫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마르크스의 친구들은 열광했으며 서평이 실리도록 하려고 온갖 애를 썼다. 엔겔스 혼자만도 독일의 일곱 개 신문에 저마다 다른—하지만 늘 호의적인—일곱 편의 서평을 썼다. 『자본론』이 널리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마르크스가 유명인이 된 것은 『자본론』이 아니라 1871 년에 출간한 『프랑스 내전』 덕분이었다. 이 책은 파리 코뮌 문제에 대하여 제 1 인터내셔널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이었다. 파리 코뮌은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패한 뒤에) 파리 시를 점령하여 두 달간 통치한 노동자 봉기를 일컫는다. 제 1 인터내셔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대중은 제 1 인터내셔널이 파리 코뮌과 연계되었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의 담화문은 국제적인 공산주의 음모가 있으리라는 초창기의 의심에 불을 지폈으며 마르크스 자신도 즉시 악명을 얻었다. 그는 친구에게 “20 년간 굴 속에서 지루한 전원 생활을 한 내게는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MC 374).

파리 코뮌이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 제 1 인터내셔널도 힘이 약해졌다. 물밑에서 부글거리던 반목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1872 년 대회에서 마르크스는 실권을 잃었다. 총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그의 강력

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마르크스는 협회가 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느니 총회 본부를 뉴욕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마르크스도 예상했겠지만 이것은 제 1 인터내셔널의 종언을 뜻했다. 당시의 통신 수준을 감안하면 유럽의 조직을 대서양 너머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도무지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10년

이제 마르크스는 54 세가 되었으며 건강도 나빴다. 그의 마지막 10 년은 평탄했다. 유산을 더 받아서 가난의 위협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 여러 면에서 마르크스 가족의 삶은 여느 풍족한 부르주아 가족을 닮았다. 그들은 큰 집에서 살았고 많은 돈을 들여 집 안을 단장했으며 자녀를 기숙 학교에 보냈고 유럽 대륙의 고급 온천에서 휴양했다. 심지어 마르크스는 자신이 주식 거래로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엥겔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돈을 받아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마침내 널리 전파되었다. 1871 년이 되자 『자본론』은 재판을 찍어야 했다. 그의 사상은 러시아 혁명가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으며 1872 년에 『자본론』 러시아어판이 출간되었다. 마르크스가 검토한 프랑스어판도 곧 뒤따랐다. 『자본론』은 마르크스 생전에 영어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그의 여느 책과 마찬가지로 독일어로 쓰였다—영어권에서도 마르크스의 명성이 커져 「현대 사상의 지도자들」이라는 소책자 시리즈에 이름이 실리기도 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유럽 전역의 혁명가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했다. 마르크스는 그 밖의 시간에는 『자본론』 제 2 권과 제 3 권을 간간히 썼지만 결코 출간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임무는 마르크스 사후에 엥겔스 몫이 되었다. 예정되어 있던 제 4 권은 집필되지 못한 채였다.

마르크스가 최후의 주요 저작을 쓰게 된 계기는 1875 년 독일의 도시 고타에서 열린 대회였다. 대회의 목표는 서로 경쟁하는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들을 통합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공통 강령이 작성되었다. 강령 작성자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전혀 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마르크스는 많은 조항이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일탈한 것에 분개했다. 그는 강령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썼으며 이것을 독일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했다. 이 「고타 강령 초안 비판」은 마르크스 사후에 출간되었는데, 마르크스가 미래 공산주의 사회의 조직을 언급한 드문 저작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당시에 마르크스의 비판

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계획된 통합은 그의 사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강령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만년에 마르크스는 명성이 높아지면서 만족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큰 개인적 슬픔을 겪어야 했다. 큰딸 예니와 둘째 딸 라우라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으나 라우라의 아이 셋은 아무도 세 살을 넘기지 못했다. 예니의 첫째 아이도 젖먹이 때 죽었지만, 그 뒤로 낳은 다섯 명은 한 명을 빼고는 모두 성년기까지 살아남았다. 하지만 1881년에 마르크스가 지극히 사랑한 아내 예니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마르크스는 아프고 고독했다. 1882년에 딸 예니가 중병에 걸려 1883년 1월에 죽었다. 마르크스는 이 상실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다. 그는 기관지염에 걸려 1883년 3월 14일에 세상을 떠났다.

2 장

청년헤겔학파

헤겔의 정신현상학

마르크스는 학업을 위해 베를린에 도착한 지 1 년 남짓 지난 뒤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현재의 철학에 딱 달라붙어” 있다고 말했다(MC 25). 이 ‘현재의 철학’이란 헤겔의 철학이었다. 헤겔은 1818년부터 1831년 죽을 때까지 베를린 대학교에서 가르쳤다(그림 4 참고). 몇 해 뒤에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자신들의 사상을 형성하던 시기에 헤겔이 미친 영향을 이렇게 서술했다.



4. G. W. F. 헤겔(1770~1831). 그의 역사관은 마르크스에 의해 변형되었다.

헤겔의 체계[는] 종래의 어떠한 체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광범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상적 부유를 이 영역에서 발전시켰[다]. 헤겔의 체계가 철학에 물든 독일의 분위기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주었겠는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고, 헤겔이 죽은 후에도 좀처럼 진정될 줄 모르던 하나의 개선 행진이었다. 진정되기는커녕 도리어 1830 년부터 1840 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헤겔풍”의 독점적 지배가 절정에 달하여 많은 적든 헤겔의 적대자들까지도 감염시키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1837 년에 딱 달라붙어 있던 이 철학은 평생 동안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훗날 그가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헤겔 철학의 진정한 탄생지요 비밀”로 묘사한 만큼(EPM 107), 이 길고 모호한 저작은 마르크스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경제학-철학 수고』 (이론과실천, 2009) 187 쪽.] ‘정신’을 일컫는 독일어 단어 ‘가이스트 Geist’는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헤겔은 이 단어로 우주의 영적 측면을 일컫는데, 그의 저작에서 이것은 일종의 우주적 정신이다. 나의 정신, 여러분의 정신, 나머지 모든 의식 있는 존재의 정신은 이 우주적 정신의 특수하고 제한적인 현현이다. 헤겔이 이 우주적 정신을 기독교의 신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생각했는지 범신론적으로 신을 세계 전체와 동일시했는지를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이 물음에 정답은 없지만, 이 우주적 정신을 대문자 **정신** Mind 으로 써서 우리의 특수한 정신과 구별하면 적절하고도 편리할 것이다.

『정신현상학』은 **정신**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데, 이 **정신**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의식적이되 자의식적이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개별적 정신들이지만 결국 자유롭고 온전히 자의식적인 통일체로서의 **정신**이 된다. 이 과정은 순전히 역사적이지도 순전히 논리적이지도 않은, 둘의 기묘한 조합이다. 역사가 단순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의 연결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경로—최종 목표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로—를 따르는 **정신**의 진보임을 헤겔이 보이려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신의 발전은 **변증법적**이다. 이 용어가 마르크스를 연상시키게 된 것은 그의 철학이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이론의 변증법적 요소는 헤겔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변증법’이 무엇인지 알려면 헤겔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정신현상학』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묘사하는 구절일 것이다. 그 글은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이 무슨 뜻인지 잘 보여주며, 거기에 소개된 아이디어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도 반영되어 있다.

독립적인 사람 두 명이 있다고 해보자. 둘은 자신이 독립적임을 알고 있지만 단일한 우주적 **정신**의 측면들로서 공통된 성격이 있음은 알지 못한다. 둘은 서로를 경쟁자로, 즉 나머지 모든 것에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 상황은 불안정하다. 그러면 투쟁이 일어나 한쪽이 다른 쪽을 정복하여 노예로 삼는다. 하지만 주인/노예 관계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주인이 모든 것이고 노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을 하고 자신의 일로써 자연 세계를 바꾸는 것은 노예다. 이렇듯 노예가 자신의 본성과 의식이 자연 세계보다 우월함을 입증함으로써 만족을 얻고 자의식을 발달시키는 반면에 주인은 노예에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헤겔이 보기에 이 과정의 궁극적 결말은 노예가 해방되어 두 독립적 존재의 최초 갈등이 극복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